

# 연령과 비만에 따른 성인 여성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의 선호 조사

석혜정

오산대학 패션디자인과 전임강사

## A Study on the Fit Preference for the Ready to Wear by the Age and Obesity Level of Adult Women

Hye-Jung Seok

Full-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Osan University

(2010. 9. 16. 접수; 2010. 10. 13. 수정; 2010. 10. 18. 채택)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it preference tendency for ready-to-wears(jackets, skirts and slacks) of adult women and to find out the respective differences by the age range and the obesity level.

The study method was the questionnaire survey with the subjects of 295 women of 20 up to 59 years of age.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fit preference tendency, physical measurements, age, and occupation. For the data analysis, SPSS 18.0 program was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s, ANOVA, Duncan's tes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Regarding the fit preferred for each part of jackets, skirts, and slacks, among ready-to-wears, the 'thing with some extra width' in every part was most favored, followed by the 'thing fitting perfectly.'
2. Th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by the age of adult wome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was higher among those in their 20's than among those of the other age range.
3. The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by the obesity level of adult wome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was high in the order of the emaciation, normalcy, and obesity types.
4. For all of three items, age and body type or body type influenced the preference by the fit level. As the age was higher and the body type was fatter, those items with some flexibility were preferred.

**Key Words:** Fit preference(맞음새 선호도), Ready-to-wear(기성복), Age(연령), Physical constitution(비만도)

---

Corresponding author ; Hye-Jung Seok

Tel. +82-31-370-2725, Fax. +82-31-370-2807

E-mail : pinky90@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 목적

맞음새는 자신의 인체 치수에 적합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각 부위가 활동하기에 편안하면서 자연스럽게 맞는가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말하는 것<sup>1)</sup>으로 의복의 맞음새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고 주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거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의복을 선택할 때는 예민하게 작용해 의복 선택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여성이 기성복을 구입할 때 구매 결정 요인을 조사한 결과<sup>2)</sup>(삼성패션연구소) 맞음새가 5점 만점에 4.4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정장의 경우 다른 구매 결정 요소 즉 내구성(4.37), 칼라(4.34), 디자인(4.3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의복 구매시 맞음새가 가장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의복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적절한 맞음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별, 연령, 체형, 선호하는 패션 경향 등의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의 맞음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적절한 맞음새는 기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의복을 신체에 자연스럽게 맞게 해 주어 미적인 면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성복 업체에서는 목표 시장의 소비자에게 적절한 맞음새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스타일이나 실루엣을 제공하는 의류제품을 설계해야 한다<sup>3)</sup>. 또한 맞음새를 통해서 브랜드를 차별화할 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음새 때문에 발생하는 생산업체와의 문제는 물론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 환불이나 가격인하 재고의 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만족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고 지속적인 경쟁적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sup>4)</sup>

맞음새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치수의 적합성과 부위별 불만족, 수선 부위에 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sup>5)6)7)</sup>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맞음새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최근의 소수 연구에

머물고 있다.

오설영<sup>8)</sup>의 연구에서는 만 18-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টে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맞음새에 대해 꼭 맞게 입는다(1점)부터 여유 있게 입는다(7점)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응답자의 체형별, 브랜드의 타깃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즉 허리가 가는 체형이 다른 체형(일자 체형, 골반이 발달한 체형, 어깨가 발달한 체형)에 비해 꼭 맞게 입는 것을 선호하였고, 브랜드의 타깃 연령이 높을수록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하였다.

손희순 외 6인의 연구<sup>9)</sup>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 의복 맞음새 선호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아이টে(재킷, 스커트, 바지)의 부위별 선호하는 맞음새를 조사한 결과, 중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맞음새 선호도가 높아, 신체 밀착형을 선호하였다.

석혜정, 김인숙의 연구<sup>10)</sup>에서는 연령과 비만도에 따라서 맞음새 정도에 따른 선호에 차이가 있었고 맞음새 선호는 연령보다는 비만도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을 남성으로 한 선행연구<sup>11)</sup>에서는 연령과 비만도에 따라 맞음새 정도에 따른 선호에 차이가 있었지만 연령과 체형이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체형보다는 연령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টে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 여성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맞음새의 선호도는 성별, 민족별, 체형별, 브랜드의 타깃 연령별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맞음새와 관련이 깊은 소비자의 연령과 비만도에 따른 맞음새 정도의 선호 차이에 관해 연구하고 연령과 비만도 중 맞음새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sup>12)</sup>와의 비교를 통해 유행이 바뀌에 따라 소비자들의 맞음새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지에 대해 조사하려고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 여성의 기성복 정장(재킷, 스커트, 바지)의 각 부위별 맞음새 정도에 따른 선호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성인 여성의 맞음새의 정도에 따

른 선호의 연령별, 비만도별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연령과 비만도가 성인 여성의 기성복 정장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성인 여성의 기성복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를 조사하기 위하여 20세에서부터 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과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15부를 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295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령	빈도(명)	비율(%)	직업	빈도(명)	비율(%)
20-29세	108	36.6	생산직	24	8.1
			전업주부	42	14.2
30-39세	78	26.4	판매직	29	9.8
40-49세	56	19.0	사무직	51	17.3
50-59세	53	18.0	학생	65	22.0
			전문직	53	18.0
			기타	31	10.5
Total	295	100.0	Total	295	100.00

<표 2> 설문지에 구성된 각 아이টে별 측정 부위

아이টে	재킷	스커트	바지
측정부위	어깨너비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폭	허리둘레
	가슴둘레		배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		대퇴둘레
	엉덩이둘레		바지부리통 밑위길이(살길이)
	소매통		

### 2. 측정 도구

설문지는 맞춤새 선호 16문항, 신체 치수 2문항, 연령,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음새 선호 경향 문항은 선행 연구<sup>13)</sup>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설문은 정장(재킷, 스커트, 바지)의 부위별 “어느 정도 맞춤새(여유분)를 원하십니까?” 의 질문에 4단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각 아이টে별 부위는 <표 2>와 같다. 각 아이টে의 부위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고, 의복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를 선정하였다. 바지의 ‘밑위길이’와 ‘대퇴둘레’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도식화로 나타냈다.

척도는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여유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의 4단계 중 가장 원하는 맞춤새에 표시하게 하였다.

맞음새 선호 경향 문항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값(Cronbach's alpha coefficient)을 산출한 결과 0.9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높은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가 높은 척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체 치수를 묻는 문항은 키와 몸무게를 스스로 적게 하였다.

### 3.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기초통계와 교차분석, 일원 분산분석, Duncan-test,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용어의 정의

#### 1) 맞춤새 정도의 선호

본 연구의 ‘맞음새 정도의 선호가 높다, 낮다’라는 용어는 선행연구<sup>14)</sup>의 용어 정의를 사용하였다. ‘맞음새 정도의 선호가 높다’라는 것은 의복의 여유분이 적어 몸에 꼭 맞는 타이트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반대로 ‘맞음새 정도의 선호가 낮다’라는 것은 의복의 여유분이 많은 느슨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음새 정도의 선호는 4점 척도로 처리하였다.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를 1점,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를 2점, “여유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를 3점, “여유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를 4점으로 처리하였고, 이들 척도를 비례척도로 간주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2) 비만도 분류

비만도 분류는 신체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Rohrer지수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Rohrer지수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 있는 키와 몸무게의 신체 계측치를 사용하여 비만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편리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15)</sup> Rohrer지수의 판정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선행연구<sup>16)17)18)</sup>에서 제시된 판정 기준으로 수척, 정상, 비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Rohrer 지수가 1.2미만은 수척, 1.2이상에서 1.5미만은 정상, 1.5 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성인 여성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의 선호

전체 응답자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빈도를 <표 3>에 나타냈다. 스커트의 허리둘레, 바지의 허리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가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다. 스커트 허리둘레, 바지 허리둘레는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가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다. 모든 부위에서 몸에 여유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 미만으로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유분이 많은 의복보다는 몸에 꼭 맞거나 여유가 조금 있는 의복을 선호하였다.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맞춤새의 정도 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각 아이템의 맞춤새의 정도 선호도의 평균은 1.49에서 2.12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낮은 점수를 보인 부위는 바지의 허리둘레(1.49), 스커트의 허리둘레(1.54), 재킷의 어깨너비(1.56)이었고, 높은 점수를 보인 부위는 바지 부리통(2.12), 스커트폭(2.11), 바지의 대퇴둘레(2.01)이었다. 선행연구<sup>19)</sup>에서는 각 아이템의 맞춤새의 정도 선호도 평균은 1.66에서 2.09의 범위에 분포하였고, 낮은 점수를 보인 부위는 바지의 허리둘레(1.66), 스커트의 허리둘레(1.67), 재킷의 어깨너비(1.68)이었고, 높은 점수를 보인 부위는 스커트폭(2.09), 재킷의 배둘레(2.01), 바지의 대퇴둘레(1.99), 바지부리통(1.99)으로, 재킷의 배둘레를 제외하면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비해 점수 분포의 폭이 더 컸고 재킷의 배둘레는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여 여유가 많고 루즈한 스타일을 선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88로 다른 부위에 비해 보통 정도의 맞춤새 정도 선호를 보이고 있다.

<표 3> 부위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빈도

(단위: 명(%))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	total
재킷	어깨너비	136 (46.1)	152 (51.5)	7 (2.4)		295 (100.0)
	가슴둘레	84 (28.5)	184 (62.4)	27 (9.2)		295 (100.0)
	허리둘레	100 (33.9)	166 (56.3)	29 (9.8)		295 (100.0)
	배둘레	74 (25.1)	183 (62.0)	37 (12.5)	1 (0.3)	295 (100.0)
	엉덩이둘레	77 (26.1)	178 (60.3)	40 (13.6)		295 (100.0)
	소매통	81 (27.5)	194 (65.8)	20 (6.8)		295 (100.0)
스커트	허리둘레	144 (48.8)	142 (48.1)	9 (3.1)		295 (100.0)
	배둘레	91 (30.8)	170 (57.6)	34 (11.5)		295 (100.0)
	엉덩이둘레	76 (25.8)	166 (56.3)	53 (18.0)		295 (100.0)
	스커트폭	55 (18.6)	154 (52.2)	85 (28.8)	1 (0.3)	295 (100.0)
바지	허리둘레	158 (53.6)	129 (43.7)	8 (2.7)		295 (100.0)
	배둘레	110 (37.3)	144 (48.8)	41 (13.9)		295 (100.0)
	엉덩이둘레	74 (25.1)	164 (55.6)	55 (18.6)	2 (0.7)	295 (100.0)
	대퇴둘레	61 (20.7)	173 (58.6)	59 (20.0)	2 (0.7)	295 (100.0)
	바지부리통	46 (15.6)	169 (57.3)	79 (26.8)	1 (0.3)	295 (100.0)
밑위길이	90 (30.5)	156 (52.9)	47 (15.9)	2 (0.7)	295 (100.0)	

<표 4> 각 부위별 맞춤새 정도의 선호도 평균 및 표준편차

아이템	부위	평균	표준 편차	아이템	부위	평균	표준 편차	아이템	부위	평균	표준 편차
재킷	어깨너비	1.56	0.54	스커트	허리둘레	1.54	0.56	바지	허리둘레	1.49	0.55
	가슴둘레	1.81	0.58		배둘레	1.81	0.62		배둘레	1.77	0.68
	허리둘레	1.76	0.62		엉덩이둘레	1.92	0.66		엉덩이둘레	1.95	0.68
	배둘레	1.88	0.61		스커트폭	2.11	0.69		대퇴둘레	2.01	0.66
	엉덩이둘레	1.87	0.62						바지부리통	2.12	0.65
	소매통	1.79	0.55						밑위길이	1.87	0.69

## 2. 연령별 맞춤새 정도의 선호 차이

맞음새의 정도의 선호가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부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소매통은 20대가, 가슴둘레, 배둘레는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맞춤새 정도의 선호가 높았다. 어깨너비, 허리둘레는 20대, 30대,

40대와 50대 순으로 맞춤새 정도 선호의 차이가 있어서 20대가 30대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선호하였고 30대는 40대와 50대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선호했다. 가슴둘레, 배둘레는 20대와 3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맞춤새 정도 선호도가 높았다. 엉덩이둘레, 소매통은 20대와 30대 사이에 차이가 있어 20대가 더 적은 여유분을 선호하였으나, 40대는 30대와 50대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스커트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20대가, 배

〈표 5〉 연령대별 맞춤새 정도의 선호 차이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20대 (108명)	30대 (78명)	40대 (56명)	50대 (53명)	F-value
재킷	어깨너비	1.33 c	1.54 b	1.73 a	1.89 a	16.98***
	가슴둘레	1.62 b	1.77 b	1.96 a	2.08 a	9.69***
	허리둘레	1.52 c	1.77 b	2.00 a	1.98 a	11.78***
	배둘레	1.70 b	1.81 b	2.09 a	2.13 a	9.18***
	엉덩이둘레	1.65 c	1.87 b	2.05 ab	2.15 a	10.93***
	소매통	1.56 c	1.79 b	1.95 ab	2.09 a	14.88***
스커트	허리둘레	1.32 c	1.50 b	1.73 a	1.85 a	15.10***
	배둘레	1.56 b	1.71 b	2.05 a	2.19 a	18.51***
	엉덩이둘레	1.66 c	1.91 b	2.05 b	2.34 a	15.77***
	스커트폭	1.98 b	2.06 b	2.21 ab	2.32 a	3.51*
바지	허리둘레	1.26 c	1.47 b	1.71 a	1.75 a	15.41***
	배둘레	1.50 b	1.71 b	2.05 a	2.09 a	15.21***
	엉덩이둘레	1.72 c	1.94 bc	2.14 ab	2.23 a	9.16***
	대퇴둘레	1.79 b	1.96 b	2.21 a	2.30 a	10.41***
	바지부리통	1.94 c	2.09 bc	2.25 ab	2.40 a	7.31***
밑위길이	1.60 c	1.87 b	2.09 ab	2.17 a	11.85***	

\*  $p \leq 0.05$ , \*\*\*  $p \leq 0.001$ ,  $a > b > c$ : Duncan-test,  $p \leq 0.05$  수준

둘레, 스커트폭은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정도 선호가 높았다. 허리둘레는 20대, 30대, 40대와 50대 순으로 맞춤새 정도 선호의 차이가 있어서 20대가 30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원하였고, 30대는 40대와 50대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원했다. 배둘레는 20대와 3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맞춤새 정도 선호도가 높았다. 엉덩이둘레는 30대와 40대 사이에서 같은 맞춤새 정도 선호를 보여 20대, 30대와 40대, 50대 순으로 맞춤새 정도 선호의 차이가 있어서 20대가 30, 40대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원하였고, 30대와 40대는 50대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원했다. 스커트폭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아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하였고, 40대는 50대와 20, 30대의 맞춤새 정도에 따른 선호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부리통, 밑위길이는 20대가, 배둘레, 대퇴둘레는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정도 선호가 높았다. 허리둘레는 20대, 30대, 40대와 50대 순

으로 맞춤새 정도 선호의 차이가 있어서 20대가 30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원하였고 30대는 40대와 50대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원했다. 배둘레, 대퇴둘레는 20대, 30대가 40대, 50대에 비해 맞춤새 정도 선호도가 높았다. 엉덩이둘레, 바지부리통은 20대와 50대가 차이가 있었는데 20대가 50대에 비해 맞춤새 정도 선호가 높았다. 밑위길이는 20대가 맞춤새 정도 선호가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 사이에 차이가 있어 20대가 더 적은 여유분을 선호하였고,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아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하였고, 40대는 50대와 30대의 맞춤새 정도에 따른 선호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부위에 따라서는 20대 혹은 20대와 30대가 맞춤새 정도의 선호가 높았고 특히 20대는 모든 부위에서 맞춤새 정도 선호가 가장 높았다. 30대는 부위에 따라 20대 혹은 40대와 유사한 맞춤새 정도 선호를 보였고, 40대 역시 부위에 따라 30대 혹은 50대와 유사한 맞춤새 정도 선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30대와

40대가 출산, 육아, 중년으로 인한 체형의 변화로 체형의 개인차가 많거나 혹은 맞음새 선호 취향의 개인차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up>20)</sup>의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up>21)</sup>에서는 40대는 부위에 따라 30대 혹은 50대와 유사한 맞음새 선호를 보여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30대는 20대보다는 맞음새 정도 선호도가 낮았고, 오히려 40대와 유사한 맞음새 선호를 보여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 3. 비만도별 맞음새 정도의 선호 차이

맞음새의 정도의 선호가 비만도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부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전체적으로 모든 부위에서 수척형이 맞음새 정도 선호가 높았다.

재킷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소매통,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

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밑위길이는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 순으로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았다. 재킷의 엉덩이둘레, 스커트폭, 바지부리통은 수척형이 정상형과 비만형에 비해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아 더 적은 여유분을 선호하였고, 정상형과 비만형은 차이가 없었다.

모든 아이템에서 수척형은 정상형과 비만형보다 확실히 적은 여유분을 원하지만 정상형은 아이템과 부위에 따라 비만형과 유사한 선호 경향을 보이거나 비만형에 비해 적은 여유분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선행연구<sup>22)</sup>에서 바지부리통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체형간 차이가 있었고, 특히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 순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부위에 따라 수척형은 정상형과 비만형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 반면 정상형은 부위에 따라 비만형의 선호 경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였다.

<표 6> 비만도별 맞음새 정도의 선호 차이

아이템별 부위	비만도	수척 (60명)	정상 (177명)	비만 (58명)	F-value
재킷	어깨너비	1.28 c	1.54 b	1.93 a	25.03 <sup>***</sup>
	가슴둘레	1.50 c	1.83 b	2.05 a	14.84 <sup>***</sup>
	허리둘레	1.40 c	1.79 b	2.03 a	18.05 <sup>***</sup>
	배둘레	1.55 c	1.90 b	2.16 a	16.13 <sup>***</sup>
	엉덩이둘레	1.55 b	1.92 a	2.07 a	12.55 <sup>***</sup>
	소매통	1.48 c	1.81 b	2.05 a	18.02 <sup>***</sup>
스커트	허리둘레	1.25 c	1.53 b	1.88 a	21.56 <sup>***</sup>
	배둘레	1.48 c	1.79 b	2.19 a	21.83 <sup>***</sup>
	엉덩이둘레	1.60 c	1.90 b	2.31 a	19.56 <sup>***</sup>
	스커트폭	1.90 b	2.13 a	2.26 a	4.27 <sup>*</sup>
바지	허리둘레	1.23 c	1.47 b	1.83 a	19.64 <sup>***</sup>
	배둘레	1.40 c	1.76 b	2.16 a	20.81 <sup>***</sup>
	엉덩이둘레	1.60 c	1.96 b	2.28 a	16.10 <sup>***</sup>
	대퇴둘레	1.70 c	2.00 b	2.34 a	15.50 <sup>***</sup>
	바지부리통	1.85 b	2.15 a	2.29 a	7.76 <sup>**</sup>
	밑위길이	1.57 c	1.85 b	2.24 a	15.740 <sup>***</sup>

\* p≤0.05, \*\* p≤0.01, \*\*\* p≤0.001, a > b > c : Duncan-test, p≤0.05 수준

#### 4. 연령과 비만도와의 관계

연령과 비만도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85.33$ 으로 서로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61.11%), 30대(60.26%), 40대(67.86%)는 정상형이, 50대는 비만형(50.94%)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20대는 수척형(35.19%), 40대는 비만형(32.14%), 50대는 정상형(49.06%)의 비율도 높아 각 연령대별 특징이 보이는 체형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 맞음새 선호 경향이 연령과 비만도의 연관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맞음새 정도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겠다.

#### 5. 각 연령대의 비만도별 맞음새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sup>1)</sup>

##### 1) 20대 비만도별 맞음새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20대의 체형별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한 결과를 <표 8>에 나타냈다.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부위는 재킷의 가슴둘레, 소매통, 바지의 배둘레로 수척형과 비만형이 차이가 있었고, 수척형이 맞음새 정도 선호도가 높아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선행연구<sup>23)</sup>에서는 20대는 수척형과 비만형이 정상형보다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특히 바지의 경우 비만형이 수척형보다 평균 점수

<표 7> 연령과 비만도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 \ 비만도	수척	정상	비만	total	$\chi^2=85.33^{***}$
20대	38(21.97) 35.19%	66(64.80) 61.11%	4(21.23) 3.70%	108(108.00) 100.00%	
30대	22(15.86) 15.86%	47(46.80) 46.80%	9(15.34) 15.34%	78(78.00) 100.00%	
40대	0(11.39) 0.00%	38(33.60) 67.86%	18(11.01) 32.14%	56(56.00) 100.00%	
50대	0(10.78) 0.00%	26(31.80) 49.06%	27(10.42) 50.94%	53(53.00) 100.00%	
total	60(60.00) 20.34%	177(177.00) 60.00%	58(58.00) 19.66%	295(295.00) 100.00%	

\*\*\*  $p \leq 0.001$ , 한 셀 안의 숫자는 차례로 - 실제출현빈도(기대빈도), 각 연령대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표 8> 20대의 비만도별 맞음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 비만도	수척 (38명)	정상 (66명)	비만 (4명)	F-value	
재킷	가슴둘레	1.47 b	1.68 ab	2.00 a	3.10*
	소매통	1.42 b	1.62 ab	2.00 a	3.20*
바지	배둘레	1.34 b	1.56 ab	2.00 a	3.12*

\*  $p \leq 0.05$ , \*\*  $p \leq 0.01$ , \*\*\*  $p \leq 0.001$ , a > b > c : Duncan-test,  $p \leq 0.05$  수준

1) 일원분산분석, t-test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만 표에 실었음.

<표 9> 30대의 비만도별 맞음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비만도	수척 (22명)	정상 (47명)	비만 (9명)	F-value
재킷	어깨너비	1.27 b	1.60 ab	1.89 a	5.68**
	허리둘레	1.45 b	1.85 ab	2.11 a	4.70*
	배둘레	1.45 b	1.89 a	2.22 a	6.83**
	영덩이둘레	1.55 b	1.98 a	2.11 a	5.03**
스커트	허리둘레	1.23 b	1.57 a	1.78 a	5.14**
	영덩이둘레	1.55 c	1.98 b	2.44 a	8.04**
바지	허리둘레	1.23 b	1.53 ab	1.78 a	4.56*
	영덩이둘레	1.59 b	2.02 a	2.33 a	6.25**
	대퇴둘레	1.68 b	2.00 b	2.44 a	5.40**
	바지부리통	1.82 b	2.15 ab	2.44 a	3.99*
	밑위길이	1.64 b	1.89 b	2.33 a	4.01*

\* p≤0.05, \*\* p≤0.01, \*\*\* p≤0.001, a>b>c: Duncan-test, p≤0.05 수준

가 더 낮아, 맞음새 정도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비만형인 사람은 의복을 선택할 때 여유분이 많아 몸을 감추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분이 적어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의복을 선호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2) 30대 비만도별 맞음새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30대의 비만도별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한 결과를 <표 9>에 나타냈다.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배둘레, 영덩이둘레, 스커트의 허리둘레, 영덩이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영덩이둘레, 대퇴둘레, 바지부리통, 밑위길이 부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바지부리통은 수척형과 비만형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 반면 정상형은 수척형과 비만형의 선호도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척형은 비만형보다 확실히 적은 여유분을 원하지만 정상형은 수척형, 비만형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재킷의 배둘레, 영덩이둘레, 스커트의 허리둘레, 바지의 영덩이둘레는 수척형과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도가 높아 더 적은 여유분을

선호하였고, 스커트의 영덩이둘레는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 순으로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도가 높았다. 바지의 대퇴둘레, 밑위길이는 수척형이 정상형과 비만형에 비해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도가 높아 더 적은 여유분을 선호하였다.

3) 40대 비만도별 맞음새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40대는 수척형이 없어 정상형과 비만형간에 맞음새 정도 선호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10). 재킷의 어깨너비, 바지의 허리둘레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맞음새 정도 선호도가 높았다.

선행연구(24)에서는 7개 부위에서 차이가 있었고, 수척형이 정상형과 비만형에 비해 맞음새 정도 선호도가 높아 여유분이 적은 의복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척형이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표 10> 40대의 비만도별 맞음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비만도	정상 (38명)	비만 (18명)	t-value
재킷	어깨너비	1.63	1.94	-2.48*
바지	허리둘레	1.63	1.89	-2.21*

\* p≤0.05

4) 50대 비만도별 맞춤새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50대도 수척형이 없어 정상형과 비만형간에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를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11). 스커트의 허리둘레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맞춤새 정도 선호가 높아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선행연구25)에서는 7개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고 모든 부위에서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맞춤새 정도 선호가 높아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부위가 1개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부위가 적었다.

<표 11> 50대 연령대의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비만도		t-value
		정상 (38명)	비만 (18명)	
스커트	허리둘레	1.69	2.00	-2.03*

\* p≤0.05

<표 12> 정상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F-value
			(66명)	(47명)	(38명)	(26명)	
재킷	어깨너비		1.33 b	1.60 a	1.63 a	1.81 a	6.61***
	가슴둘레		1.68 b	1.83 ab	1.95 a	2.04 a	3.32*
	허리둘레		1.59 b	1.85 a	1.95 a	1.96 a	4.41**
	배둘레		1.74 b	1.89 ab	2.05 a	2.12 a	3.73*
	영덩이둘레		1.67 b	1.98 a	2.08 a	2.23 a	7.44***
스커트	소매통		1.62 b	1.85 a	1.92 a	2.08 a	6.21***
	허리둘레		1.33 b	1.57 a	1.71 a	1.69 a	5.32**
	배둘레		1.59 c	1.77 bc	1.97 ab	2.08 a	5.91**
바지	영덩이둘레		1.64 c	1.98 b	2.00 b	2.31 a	8.66***
	허리둘레		1.26 b	1.53 a	1.63 a	1.65 a	6.16**
	배둘레		1.56 b	1.74 ab	1.97 a	2.00 a	4.44**
	영덩이둘레		1.76 b	2.02 ab	2.08 a	2.19 a	3.76*
	대퇴둘레		1.83 b	2.00 ab	2.13 a	2.23 a	3.28*
바지부리통	바지부리통		1.98 b	2.15 ab	2.26 ab	2.42 a	3.45*
	밑위길이		1.62 b	1.89 ab	2.03 a	2.08 a	4.33**

\* p≤0.05, \*\* p≤0.01, \*\*\* p≤0.001, a > b > c : Duncan-test, p≤0.05 수준

2)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만 표에 실었음.

6. 각 비만도로 본 연령대별 맞춤새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2)

1) 수척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수척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정도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40대와 50대는 수척형이 없어 20대와 30대만 분석을 실시함)를 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26)에서는 7개 부위에서 차이가 있어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2) 정상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정상형의 연령대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한 결과를 <표 12>에 나타냈다. 재킷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소매통,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바지부리통, 밑위길이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있는 모든 부위에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정도의 선호도가 높아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통, 스커트의 허리둘레, 바지의 허리둘레는 20대가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아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재킷의 가슴둘레, 배둘레, 바지의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밑위길이는 40대와 50대가 차이가 없었으나 30대는 20대와 40, 50대의 선호 경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40대와 50대가 20대에 비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아 더 여유가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스커트의 배둘레, 바지의 바지부리통은 20대, 50대가 맞춤새 정도 선호의 차이가 있었고 20대가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고, 30대와 40대는 20대와 50대의 선호 경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스커트의 엉덩이둘레는 20대, 30대와 40대, 50대 순으로 맞춤새 정도 선호의 차이가 있어서 20대가 30대, 40대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원하였고, 30대와 40대와 50대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원했다.

선행연구27)에서는 모든 부위에서 집단 간 차

이가 없어 다른 결과가 보였다.

### 3) 비만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비만형의 연령대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28)에서는 7개 부위에서 차이가 있어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 7. 맞춤새 선호에 대한 연령과 비만도의 관계

연령과 비만도가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과 로러지수를 독립 변수로 하고 맞춤새 정도 선호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

연령과 체형이 모두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통,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대퇴둘레, 바지부리통, 밑위길이였고, 체형만의 영향을 받는 부위는 재킷의 가슴둘레, 배둘레, 스커트폭, 바지의 엉덩이둘레였고, 연령만의 영향을 받는 부위는 없었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연령이 재킷의 소매통, 바지부리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로러지

<표 13> 맞춤새 선호도에 대한 연령과 비만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value	R <sup>2</sup>	F-value
재킷	어깨너비	연령	0.01	0.00	0.21	3.25**	0.21	38.95***
		로러지수	1.04	0.23	0.30	4.60***		
	가슴둘레	연령	0.01	0.00	0.13	1.96	0.15	25.57***
		로러지수	1.09	0.25	0.29	4.31***		
	허리둘레	연령	0.01	0.00	0.20	2.92**	0.14	24.26***
		로러지수	0.88	0.27	0.22	3.29**		
배둘레	연령	0.01	0.00	0.11	1.65	0.15	26.10***	
	로러지수	1.22	0.26	0.31	4.62***			
엉덩이둘레	연령	0.01	0.00	0.18	2.63**	0.14	22.98***	
	로러지수	0.92	0.27	0.23	3.41**			
소매통	연령	0.01	0.00	0.24	3.68***	0.18	32.36***	
	로러지수	0.81	0.23	0.23	3.49**			

〈표 13〉 계속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value	R <sup>2</sup>	F-value
스커트	허리둘레	연령	0.01	0.00	0.21	3.12**	0.18	32.56***
		로리지수	0.96	0.24	0.27	4.06***		
	배둘레	연령	0.01	0.00	0.23	3.54***	0.22	40.67***
		로리지수	1.16	0.26	0.29	4.49***		
엉덩이둘레	연령	0.01	0.00	0.19	2.94**	0.20	36.04***	
	로리지수	1.27	0.28	0.30	4.59***			
스커트폭	연령	0.01	0.00	0.10	1.39	0.05	7.49**	
		로리지수	0.65	0.32	0.15	2.05*		
바지	허리둘레	연령	0.01	0.00	0.21	3.15**	0.19	34.20***
		로리지수	0.98	0.23	0.28	4.21***		
	배둘레	연령	0.01	0.00	0.18	2.77**	0.20	36.53***
		로리지수	1.36	0.28	0.31	4.78***		
	엉덩이둘레	연령	0.01	0.00	0.08	1.26	0.17	30.77***
		로리지수	1.57	0.29	0.36	5.42***		
대퇴둘레	연령	0.01	0.00	0.14	2.08*	0.16	28.23***	
	로리지수	1.28	0.28	0.30	4.51***			
바지부리통	연령	0.01	0.00	0.17	2.48*	0.09	14.29***	
	로리지수	0.67	0.29	0.16	2.28*			
밑위길이	연령	0.01	0.00	0.18	2.68**	0.15	26.18***	
	로리지수	1.11	0.30	0.25	3.75***			

수는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대퇴둘레, 밑위길이에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로리지수 모두 높을수록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통,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대퇴둘레, 바지부리통, 밑위길이의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았고, 재킷의 가슴둘레, 배둘레, 스커트폭, 바지의 엉덩이둘레는 로리지수가 높을수록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았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뚱뚱할수록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통,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대퇴둘레, 바지부리통, 밑위길이 부위에 여유가 있는 것을 더 선호하였고, 재킷의 가슴둘레, 배둘레, 스커트폭, 바지의 엉덩이둘레는 뚱뚱할수록 여유가 있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세 아이템 모두 모든 부위에서 연령과 체형 혹은 체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sup>29)</sup>에서는 남성은 재킷은 모든 부위에서 연령 혹은 체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바지는 배둘레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연령과 체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달랐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맞음새와 관련이 깊은 소비자의 연령과 비만도에 따른 맞음새 정도의 선호차이에 관해 연구하고 연령과 비만도 중 맞음새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성복 정장 중 재킷, 스커트, 바지의 각

부위별 선호하는 맞춤새는 스커트의 허리둘레, 바지의 허리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여유가 약간 있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그 다음으로 ‘몸에 꼭 맞는 것’을 선호하였고 스커트의 허리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부위는 ‘몸에 꼭 맞는 것’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여유가 약간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2. 성인 여성의 연령에 따른 맞춤새 정도 선호 경향은 차이가 있었다. 부위에 따라서는 20대 혹은 20대와 30대가 맞춤새 정도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특히 20대는 모든 부위에서 맞춤새 정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30대는 부위에 따라 20대 혹은 40대와 유사한 맞춤새 정도 선호를 보였고, 40대 역시 부위에 따라 30대 혹은 50대와 유사한 맞춤새 정도 선호를 보였다.

3. 성인 여성의 비만도에 따른 맞춤새 정도 선호 경향도 차이가 있었다. 모든 아이템에서 수칙형은 정상형과 비만형보다 맞춤새 정도 선호도가 높아 적은 여유분을 원하지만 정상형은 아이템과 부위에 따라 비만형과 유사한 선호 경향을 보이거나 비만형에 비해 적은 여유분을 원하였다.

4. 연령대와 비만도의 관련성을 배제해서 살펴본 결과, 각 연령대의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각 비만도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에서는 정상형에서만 연령대 간 선호도 차이가 있었다.

5. 연령과 체형이 맞춤새 정도 선호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세 아이템 모두 모든 부위에서 연령과 체형 혹은 체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체형이 모두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통,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대퇴둘레, 바지부리통, 밀위길이였고, 체형만의 영향을 받는 부위는 재킷의 가슴둘레, 배둘레, 스커트폭, 바지의 엉덩이둘레였고, 연령만의 영향을 받는 부위는 없었다. 연령과 로리지수 모두 높을수록 즉 나이가 많고 뚱뚱할수록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통,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대퇴둘레, 바

지부리통, 밀위길이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도가 낮았고, 재킷의 가슴둘레, 배둘레, 스커트폭, 바지의 엉덩이둘레는 로리지수가 높을수록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도가 낮았다.

연령과 체형이 맞춤새 정도 선호 경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는 성인 여성은 연령보다는 체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연령대와 체형에 따라 비슷한 정도의 맞춤새 선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와 체형의 조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30, 40대가 20대에 비해 맞춤새 정도 선호도가 낮았고, 50대보다는 높고, 30대와 40대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달리 30,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뚜렷한 맞춤새 정도 선호의 특징을 보이지 못하고 체형과 부위에 따라 20대 또는 50대와 같은 맞춤새 정도 선호를 보였고, 30대와 40대 간에서도 체형과 부위에 따라 유사하거나 다른 맞춤새 정도 선호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전에 비해 30대와 40대가 늦은 출산, 임신, 육아, 중년의 체형 변화, 다이어트 등을 겪으면서 한 개인 안에서의 체형의 변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체형의 차이가 많아 체형이 다양하고, 여유분 선호 취향이 다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업체에서는 목표 시장에 따른 적절한 맞춤새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응답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소재, 패턴, 디자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맞춤새 측정을 주관적인 어휘로 응답했으며, 연구 대상의 각 연령대별 빈도 차이가 많아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황수현 (2009). 드레스 셔츠의 맞춤새별 여유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6.
- 2) 소비자 의복 구입 결정 요인 (2000. 12. 28). 삼성패션연구소. 자료 검색일 2006. 6. 5. 자료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3) 석혜정, 김인숙 (2006). 연령과 체형에 따른

- 성인 남성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 선호도. *대한가정학회지* 44(8), p.21.
- 4) 패션 기업 입장에서의 상품 맞춤새 문제 (2008. 4. 14). 인터패션플레이닝. 자료 검색 일. 2010. 5. 24. 자료출처 <http://www.ift.co.kr>.
- 5) 김양원 (1999). 여성용 기성복에 대한 적합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pp.211-217.
- 6) 이진희 (2001). 성인 여성의 기성복 구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4), pp.357-363.
- 7) 정주희 (1996). 숙녀복 치수체계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오설영, 천종숙 (2002). 소비자의 여성정장 브랜드 선호와 기성복 치수의 맞춤새. *패션비즈니스학회지* 6(1), pp.128-136.
- 9) 손희순, 임순, 김효숙, 손희정, 김영숙, 장희경, 박호선 (2000).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맞춤새 선호도 및 의복행동 비교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4(1), pp.59-72.
- 10) 석혜정, 김인숙 (2003). 성인 여성의 연령, 비만도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선호 경향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1(9), pp.17-29.
- 11) 석혜정, 김인숙 (2006). Op. cit., p.21.
- 12) 석혜정, 김인숙 (2003). Op. cit., pp.17-29.
- 13) Ibid. pp.19-20.
- 14) 석혜정, 김인숙 (2006). Op. cit., p.15.
- 15) 성민정, 김희운 (2001). 비만 판정 지수에 의한 여대생의 체형 분류 및 체형 인지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3), pp.227-234.
- 16) 박우미 (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1(1), pp.163-180.
- 17) 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 (2000). 신체에 대한 인식과 계측 자료에 의한 여대생들의 체형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pp.59-70.
- 18) 주재은, 정찬진, 정명선 (2001). 중년 여성의 신체지각과 이상적 연령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복식문화연구* 9(5), pp.723-733.
- 19) 석혜정, 김인숙 (2003). Op. cit., pp.20-21.
- 20) 석혜정, 김인숙 (2006). Op. cit., pp.16-17.
- 21) 석혜정, 김인숙 (2003). Op. cit., pp.21-23.
- 22) Ibid., pp.23-24.
- 23) Ibid., p.25.
- 24) Ibid., p.26.
- 25) Ibid., p.26.
- 26) Ibid., pp.26-27.
- 27) Ibid., p.27.
- 28) Ibid., p.27.
- 29) 석혜정, 김인숙 (2006). Op. cit., pp.19-20.